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주력”

민선 6기 2년 설계 박 홍 른 목포시장

“안정적 발전을 토대로 변화와 창조적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박홍륜 목포시장은 지난 1년을 ‘전화위복(轉禍爲福=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과 ‘다난흥방(多難興邦=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나야 흥성해진다는 의미)’이라는 2개의 사자성어로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당시 목포는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고,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였다”면서 “지난 1년은 난마처럼 얽힌 다양한 과제(대양산단 분양, 옥암 대학부지 활용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시장은 1년 성과와 관련해 ‘부채 320억원 감축’과 ‘소통의 열린 행정’을 1순위로 꼽았다.



1년만에 부채 320억원 감축 성과 소통의 날 운영 ‘열린 행정’ 박차 산단 적극 세일즈로 일자리 창출

취임 당시 3010억원에 달했던 부채가 올 6월말 현재 2690억원으로 줄었다. 이를 위해 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공무원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했으며, 세출구조 조정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23개 동 주민센터와 179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모두 25회에 걸쳐 182개소에서 ‘시민과 소통의 날’을 운영했으며, ‘뉴목포사랑 시민운동’과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감동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신규사업 16건에 134억원, 계속사업 41건에 1577억원 등 총 1711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 최우수기관 등 정부와 전남도, 민간단체로부터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는 광복합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박 시장은 “대양 산단과 세라믹 산단 분양을 위해 재정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결과 세라믹 산단에 2개 기업의 분양을 성사시켜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놓은 게 큰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남진 야시장 조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면서 “외국인 관광 특화거리와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안전 도시 기반 구축,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사가 시대 해소에 노력한 점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투자·기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목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여향에

걸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데 ‘열인’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수확여행단과 같은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 건립, 원도심의 자연경관과 근대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KTX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 대학부지 용도변경, 대양산단 산업단지 분양, 도시재생 사업 등 민선 6기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중심도시 건설 ▲도심재생 확대로 원·신도심간 균형발전 도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품격 있는 국제 교육·문화 도시 육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장 구현 등 6개분야 50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전통문화 우리가 살린다”... 전남 첫 ‘실버 국악 예술단’ 창단

고수의 장단에 맞춰 구성된 창(唄)이 울려 퍼지는 목포 문화원, 국악연습에 몰입한 어르신들로 열기가 뜨겁다.

지난 6월 초 전남지역 최초로 목포에 ‘전남 실버 국악 예술단’(단장 이춘웅, 이하 실버국악단)이 지난 6월 초 전남지역 최초로 목포에서 창단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버 국악단은 북·장구·판소리·민요·한춤 등 각 분야에 조예가 깊은 65~75세 노인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남도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목포문화원에 등지를 튼 이들은 앞으로 전남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실버 국악단이 탄생하기까지는 이춘웅 단장의 각고의 노력이 한 몫을 했다.

이 단장은 지난 2012년 제 11대 목포문화원장 취임 당시 ‘예향 목포의 명성에 걸맞게 국악·민속 분야에 대한 연구·보급 등 전통문화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심해오다 문화원에서 7년 전부터 운영 중인 실버 국악공연단, 민요교실, 장구교실, 한춤 교실, 팽과리·진도북 놀이 교실 등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창단 배경이다.

게다가 이 단장은 직접 제작한 기획 제



전남실버국악 예술단 단원들이 최근 목포문화원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안서를 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명한 결과 실버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원받는 쾌거를 올렸다.

창단에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목포시민 국악대잔치’를 통해 손색없는 기량을 선보여 국악 예술단으로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게다가 올 실버 국악단은 이달 말에 열리는 ‘목포 향구축제’에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앞으로 요양원·불우시설·교도소 등을 찾아 위안 공연도 펼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국악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서 엄격한 심사(오디션)를

통해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단원들을 선발한 만큼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원장으로서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목포의 역사 문화, 전통 문화, 민속 문화의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문화원은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전국 229개 문화원이 참가한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행사에서 한 국문화원 창설 70년 역사상 호남지역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목포=글·사진 고규석기자 yousou@

25일 해변마라톤대회 목포 야경보며 함께 달려요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해 보세요”

목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갯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밤바다와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2015 목포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함께 달려요’(Let's run together!)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직장 동료와 선·후배, 교사와 제자 등이 함께 달리며 재충전과 추억, 건강을 담는 대회다. 5km 가족코스과 10km 건강코스도 나눠 실시되며 개인과 단체상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마라톤 홈페이지(www.mokpomarathon.com)나 전화(061-244-8729)로 신청하면 된다.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기록증,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순위권 밖의 참가자들에게도 값진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목포 문화시설 관람 할인 및 목욕 이용료 할인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 조선·해양산업 발전 3자간 공동협력 체결

목포대학교 조선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단(박종환 단장)은 최근 삼성중공업(주)중앙연구소 제품성능연구센터,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전남분원과 조선·해양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3자간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MOU체결은 목포대 특성화 육성 분야인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목포대 조선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소형 조선소 주력 선종의 최적 선형 및 에너지 절감장치 적용기술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보해양조 퇴직사우회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보해양조 퇴직사우회(회장 임종범·사진)는 최근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우회는 그동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어르신 330여명에 게 장수사진 무료 촬영, 불우이웃과 시월



돕기, 복지기관 지속적인 후원, 생활이 어려운 고·대학생 학비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임종범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목포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역할과 소임을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 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30,000원
기 념 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